

# 永郎 詩語의 계량적 고찰

조창규 · 한유석  
(동신대학교)

**Jo, Changgyoo & Han, Yuseok, 2001. A Statistical study on Kim, Youngrang's Poetic Dic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9(2), 139-158.**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eatures of Kim, Youngrang's poetic diction by way of statistical method. The corpus is consist of 85 poem. And the size of the corpus is 4710 words and 11,969 syllables. The results I get are as follows, (1) The local color of the poems of Kim, Youngrang is caused by Kangjin dialect which form 8.3 percent rather than words which are related to nature, (2) Youngrang use the more adjectives and adverbs as compared with other poets. The effects of this are descriptive. **(Dong-shin University)**

## 1. 머리말

1.1. 시는 언어가 가장 승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문학 양식으로, 언어의 보편적 질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 생략이나 상징, 반복이나 음악성을 위한 장치들 또는 문법의 일탈 등이 그것이다. 시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는 김완진(1982:2)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론이 참고된다. 이에 따르면, "시의 어학적 연구의 목적은 문학이라는 특수한 목적 하에서 영위되는 언어 현상에 내재하는 질서의 구명에 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시에 있어서 또는 시의 어느 특수 장르에 있어서 언어의 일반적 질서에 어떠한 제약이 가해지는가. (2) 어떠한 기존 제약이 면제되는가. (3) 한 시인 또는 그의 한 작품에서 다시 어떠한 제약이 주어지며 또는 면제되는가. 이 세 가지 연구 방법은 주로 문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일반 언어 현상이 보여주는 문법적 절차와 시의 언어가 갖는 문법적 절차의 다른 점을 구명하거나, 한 시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문법적 질서를 구명하는 작업이 시의 국어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의 국어학적 연구 업적은 주로 이런 방면에서 축적되었다. 이 외에도 시의 국어학

적 연구는 시어의 주석으로도 나타났다. 그런데 시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는 이런 방법 외에도 시의 언어를 계량적으로 고찰하는 방법도 있다. 시어를 계량하여 시의 특징을 고찰한 업적으로는 박갑수(1971)를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시의 언어 혹은 어떤 시인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시어의 특징을 계량하여 시의 특징을 구명하거나 한 시인의 어휘 목록을 작성하여 그 시인의 시적 경향을 고찰하는 방법이다.

1.2. 이 글에서 필자들은 영랑 시어를 계량하여 그의 시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다. 지금까지 영랑 시에 대한 연구 업적은 주로 문학적인 면에서 축적되었다. 영랑 시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겠지만, 긍정적 평가를 하는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영랑 시의 특징은 '언어의 彫琢, 음악성, 서정성, 향토성'으로 요약된다. 영랑 시의 이런 특징 중, '언어의 조탁'은 새로운 어휘의 형성이나, 어휘의 변용 등이 해당할 것이다. '음악성'은 운율과 관련된 두운이나 각운 혹은 특별한 어구나 어휘의 반복 사용 또는 특정 자음이나 모음의 반복이나 대응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서정성은 어휘만을 분석해서는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향토성'은 토속적인 사물과 관련된 어휘 혹은 방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랑 시의 특성 중 어휘 계량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음악성과 향토성에 초점을 맞춘다.<sup>1)</sup>

이 글은 영랑 시의 특징을 계량적인 관점에서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영랑 시에 사용된 시어의 음절 빈도와 음소 빈도를 계량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초기시(『시집』)와 후기시(『시선』)를 비교한다. 이 작업은 영랑 시의 한 특징으로 언급되는 음악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영랑 시어의 빈도를 조사해보고 이를 소월의 고빈도 시어와 함께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인 영랑과 소월의 시에 쓰인 고빈도어를 비교해 보면 둘 사이의 유

1) 이 글에서 『시집』과 『시선』은 다음을 지칭한다. 『시집』은 시문학사 판 『영랑시집』을 문학사상사 자료 조사 연구실에서 『한국현대시 원본 권집4』 『永郎詩集』으로 간행한 것이다. 『시선』은 『永郎詩集』(문학사상사)에 실린 시 이외의 시 전부를 지칭한다. 『시선』의 텍스트로는 1959년 친구문화사에서 白蠟 선생 등 여섯 분이 편집한 『한국시인전집5』 『永郎詩集』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여기에 실리지 않은 시는 <양형호 편(1997), 오매 단종들것네, 한국문화사>를 참고하고, 가능한 원래 발표된 시와 비교를 하였다. 이렇게 『영랑시집』에 실린 시와 그렇지 않은 시를 구분한 이유는 보통 『영랑시집』이 간행될 때까지를 초기 시로, 그 이후를 후기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여 초기 시와 후기 시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차이도 경우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서다.

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어를 품사별로 분류하고 이것을 다른 시인들과 비교한다. 셋째, 일본의 『分類語彙表』를 이용하여 영랑 시어를 분류해 보고 그 중 자연과 관련된 시어의 비율을 『청록집』과 비교한다. 또한 전체 시어에서 강진 방언이 차지하는 비율도 아울러 살펴본다. 이 작업은 영랑 시가 갖는 향토성과 관련되어 있다.

1.3. 자료의 처리는 먼저, 영랑의 시 85편(『시집』 53편, 『시선』 32편)을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 97’을 이용하여 컴퓨터 가독형 자료로<sup>2)</sup> 입력하였다. 다음으로, 빈도 추출 프로그램(bindo.exe)을 이용하여 원시말뭉치의 음절(전체 음절, 어두 음절, 어말 음절, 시행 끝음절) 빈도와 음소(초성, 중성, 종성) 빈도를 내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20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그런 다음, 수작업으로 문법 형태에 따른 태그와 방언적 요소, 시어나 시행 등의 중복 등에 태그를 부착하였다. 다음으로, 태그가 부착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다시 빈도 프로그램으로 어휘 빈도를 낸 뒤에 엑셀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음절과 음소 빈도에는 문법 형태인 어미와 조사도 포함하였지만, 어휘 빈도에서는 문법 형태(서술격조사 포함)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렬된 어휘는 다시 품사별 의미군 별로 분류하였다.

자료 처리에 있어서 오차를 인정해야 한다. 서상규·한영균(1999:64)은 자연언어 처리 시스템의 자동 태깅 결과에서는 약 5% 정도의 분석 실패 등의 어절이 포함되고, 후처리 이후에도 약 2% 정도의 오분석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2% 정도의 오차를 전제하고 있다. 필자들은 수작업으로 태깅 작업을 하였고 수차에 걸쳐 발견된 오류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오분석한 예가 많지는 않으리라 본다. 다만, 일관성 있는 처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인정하여, 필자들도 최대 1%의 오차를 인정하고자 한다.

## 2. 계량 결과와 분석

### 2.1. 음절 빈도와 분석

대상 시의 총 음절수는 11,969 음절이고 이 중 『시집』이 4,918음절, 『시선』이 7,051 음절이다. 음절수를 계산함에 있어 장음 표기는 앞 음절의 중

2) 아무런 가공도 되지 않은 순수 텍스트로 된 말뭉치를 ‘원시말뭉치’라 지칭한다.

성 또는 중성과 종성이 중복된 것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버-르서'는 '버얼서'로 '머-니'는 '머언'으로 '오-매'는 '오오매'로 '나-는'은 '니언'으로 각각 처리하였다. 또한 사이시옷의 경우 앞 음절의 종성이 없는 경우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돌려 적어 처리하였고, 앞 음절의 받침이 있는 경우는 생략하였다. 예를 들면, '피스줄'은 '핏줄'로, '잠스결'은 '잠결'로 처리하였다. 전체 음절 빈도에 따른 사용률을 보이면 표 1과 같다.<sup>3)</sup>

표 1. 전체 음절의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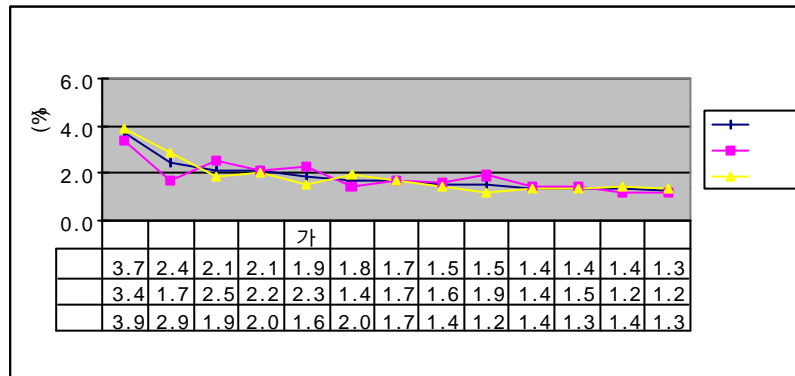


표 1의 전체 음절의 사용률은 음절의 위치와 관련이 없이 모든 음절의 사용률을 보인 것인데, 「시집」과 「시선」이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표 2는 어두 음절의 중복 사용률을 보인 것이다. 표 1을 표 2와 비교해 보자. 국어에서 어두 음절은 강한 음절이고, 변별적이며, 강세가 놓이는 위치다. 전체 음절과 어두 음절을 비교할 때, 교빈도 음절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경향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빈도 음절의 사용률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어말 음절의 사용률은 전체 음절이나 어두 음절의 사용률과 비교하여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준다. 교빈도 음절의 중

3) 「시집」은 「시집」이며, 「시선」은 「시선」이다. 그리고 종합은 「시집」과 「시선」에 실린 시 전체를 말한다.

복 사용률이 전체 음절이나 어두 음절의 사용률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다.<sup>4)</sup>

표 2. 어두 음절의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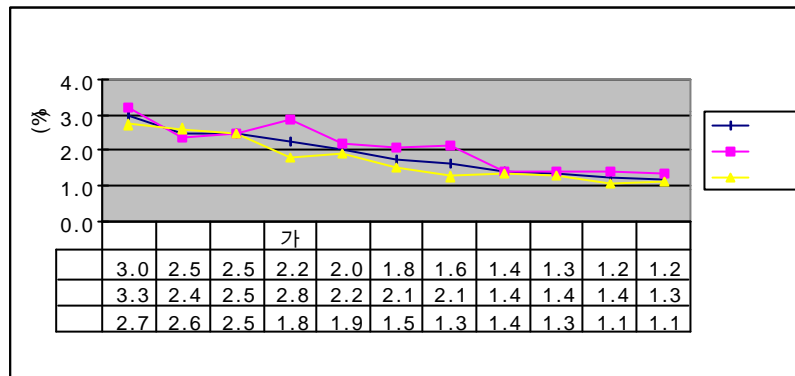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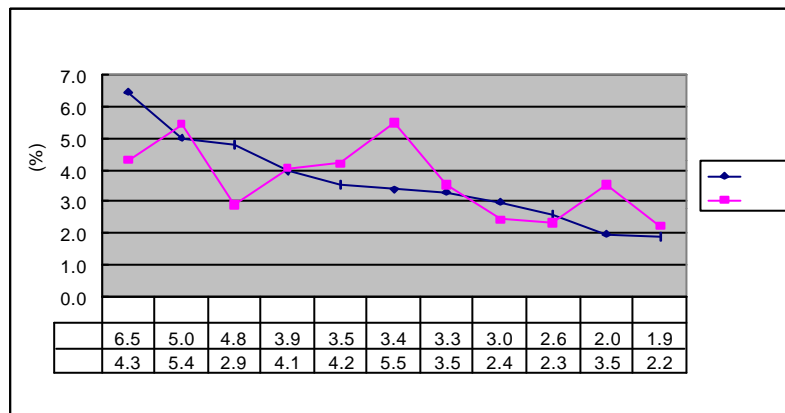


표 3. 어말 음절의 사용률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국어의 형태적 특징 때문이다. 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상 조사와 어미가 어말에 오기 때

4) 1음절로 된 단어는 어두 음절과 어말 음절에 중복 계산되었다.

문에 어말 음절은 동일한 음절이 중복되기 쉽다. 다시 말해, 조사나 어미가 기능 어휘로서 그 모집단이 실질 어휘에 비해 훨씬 작은 개체수를 가지기 때문이다(서상규 · 한영균, 1999).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어로 창작한 시는 어느 정도의 각론이 있게 마련이고, 두문에 비해 각론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sup>5)</sup> 둘째는, 영랑의 의도적인 운을 맞추기도 작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영랑의 시 작품에서 어말 음절을 동일하게 맞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2.)에서 보겠지만 어말 음절 종성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향이 드러난다.

어말 음절에서 보여주었던 음절의 중복 현상은 시행 끝 음절에서는 그도가 심해진다. 표 4를 보자. 표 4가는 「시집」에 실린 시의 각 시행 끝 음절의 중복 사용률을, 표 4나는 「시선」에 실린 시의 각 시행 끝 음절의 중복 사용률을 보인 것이다. 상위 빈도 음절 10개의 누적 사용률이 「시집」의 경우 45.1%, 「시선」의 경우 50%에 달한다. 이런 분석치는 시행 끝 음절에서 동일한 음절이 중점적으로 중복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이 점은 시행 끝 음절의 중복이 영랑 시에서 중요한 운율적 장치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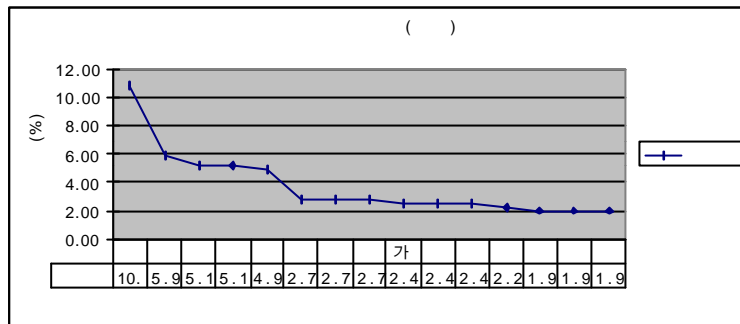
「시집」과 「시선」을 비교해 보면, 상위 빈도 음절의 사용률에서도 「시선」이 더 높아 동일 음절의 중복이 많다. 또한 「시집」의 경우는 빈도수 상위 10개 음절 중 두 음절이 폐쇄음절임에 비해, 「시선」은 모두 개방음절이다.

5) 성호경(1996)에서는 영시나 한시의 경우, 시행들에서 필요에 따라서 먼 끝에 위치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풀라 쓸 수가 있어서, 이로써 각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우리 시가의 경우에 의도적 조작에 의하지 않고도 일정한 소릿값의 말이 시행들의 끝에 저절로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각론의 효과를 충분히 드러낸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또, 우리 시가의 시행들에서 나타나는 '각론적 양상'은 대체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불규칙적으로 산재하는 것이지만 어떤 일정한 규칙적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결국 우리 시가에는 우리말의 특징 때문에 규칙적인 각론의 양상을 뚜렷이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영시나 한시의 경우 각론을 이루는 말이 다른 부분에 비해 더 강조되도록 함이 보통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시행의 끝에 놓이는 어미는 의미 담지 기능이 약하고 짧고 약하게 소리나는 경향이 있어서 강조가 놓이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규칙성을 강조하는 데서 나오는 의견으로 보인다. 우리 시가에서는 영시나 한시처럼 규칙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인들은 의도적으로 일정한 어미나 조사, 혹은 음절이나 모음을 시행 끝에 배치함으로써 각론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런데 규칙성이 없다고 하여 그것마저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말의 특징 때문에 규칙적인 각론의 양상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그 반대로 우리말의 형태론적인 특징 때문에 각론을 맞추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 시인들이 규칙성을 얻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개방음절은 폐쇄음절에 비해 소리가 더 가볍고 공명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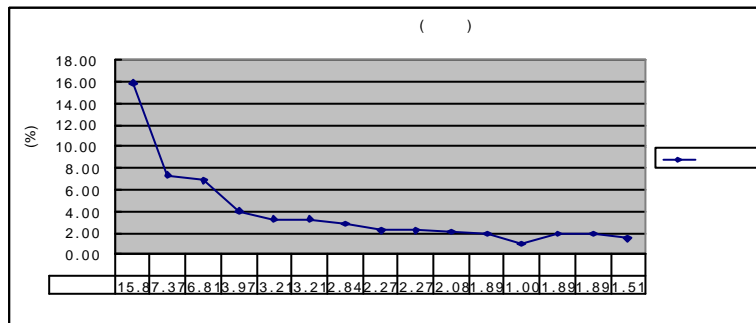
표 4가. 「시집」의 시행 끝 음절 사용률



2.2. 음소 빈도와 분석

음절 분석을 통해서 영랑 시가 시행 끝 음절을 중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음소 분석은 전체와 시행 끝 음절의 음소만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6)

표 4나. 「시선」의 시행 끝 음절 사용률



6) 표에서 (끝)이라는 표지가 달린 것은 시행 끝 음절의 음소다. '전체'는 「시집」과 「시선」을 종합한 전체 음소 통계다. 초성 음소 빈도 조사에서 자소 'ㅇ'은 제외하였다.

표 5가는 시행 끝 음절에 사용된 고빈도의 초성 음소와 전체 음소를 나타낸 것이다. 초성 음소는 「시선」이 'ㄷ, ㄹ'을, 「시집」이 'ㄴ, 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중복 사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전체 음소는 마찰음과 파찰음 그리고 경·격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률을 보여준다. 시행 끝 음절 초성 음소에서 유성 자음의 사용률은 약 42% 정도임에 반하여, 전체 음소에서 초성에 유성 자음이 사용된 비율은 33% 정도로 시행 끝 초성 음소에서 유성 자음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런 결과는 시행 끝 음절의 중복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경·격음의 사용률이 後期 詩인 「시선」보다는 初期 詩인 「시집」이 더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소리의 특성으로 보면, 마찰음, 파찰음은 조음기관의 협착으로 인해 소음이 생기게 되며, 경·격음은 성문 폐쇄나 조음기관의 협착으로 인해 청취감이 강한 소리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영랑 시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는 점은 의외로 생각된다. 이런 강한 소리의 배합이 더욱 영랑 시를 부드럽고 음악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른 시인들의 시어와 비교하지 못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영랑 시어의 한 특징이 아닌가 한다.

표 5가. 시행 끝 음절의 초성 음소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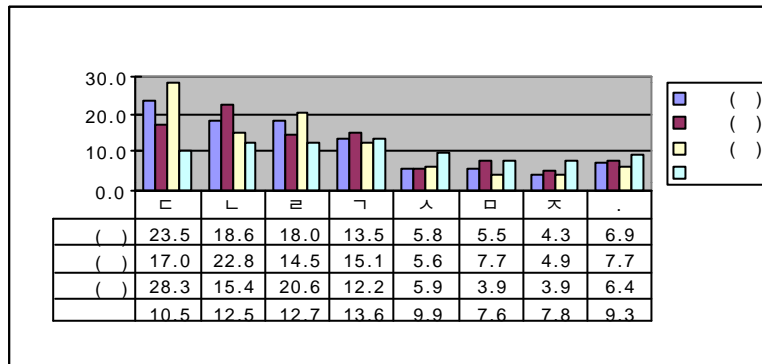


표 5나는 시행 끝 음절에 사용된 고빈도의 중성 음소를 전체 음절의 중성 음소와 비교한 것이다. '전체'의 음소와 시행 끝에서의 중성 음소를 비교해 보면, 양성 모음의 두드러진 사용률 볼 수 있다.<sup>7)</sup> 양성모음은 음성모



음에 비해 밝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작고, 탄력적인 느낌을 준다. 우리가 영랑 시에서 느끼는 밝고, 구르는 듯한 느낌은 양성모음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표 5나. 시행 끝 음절의 종성 음소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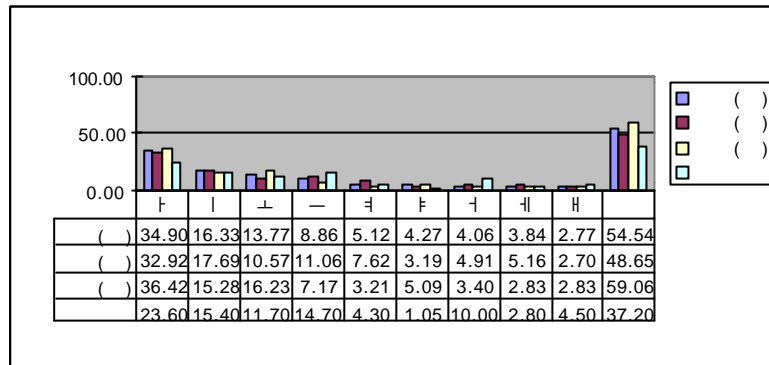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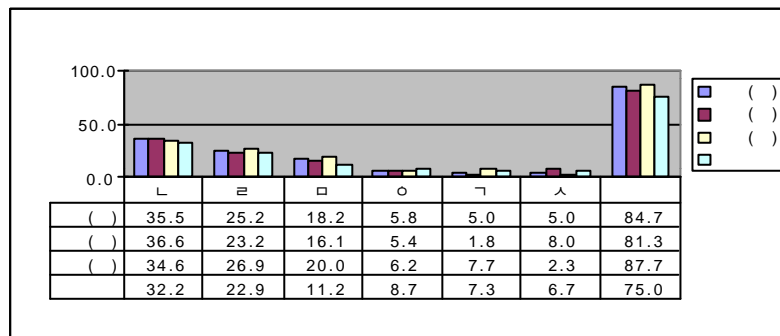


표 5다는 시행 끝 음절에 사용된 고빈도 종성 음소를 전체 음절의 종성 음소와 비교한 것이다. 여러 장르의 문장에서 종성 음소의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문교부(1955)와 문영호 외(1994)의 종성 빈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5다. 시행 끝 음절의 종성 음소 사용률



7) 양성 모음은 'ㅏ, ㅓ, ㅗ, ㅛ'를 지칭한다.

표 6. 종성 빈도(문교부, 문영호 외)

	ㄴ	ㄹ	ㅇ	ㄱ	ㅋ	ㅈ	ㅊ	유성음
문교부	30.6	21.8	11.9	9.1	7.5	4.6	4.2	71.8
문영호 외	31.2	20.4	16.1	10.4	5.9	4.6	3.5	73.6

표 6은 우리 국어 일반 문장의 종성 위치에서 유성자음의 사용률이 전체의 약 3/4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우리 국어 종성은 유성자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영랑 시에서 전체 음절의 종성 음소의 빈도는 표 6과 비슷하지만, 시행 끝 음절에서 유성 자음 종성은 전체 종성 음소의 4/5 이상을 차지하여 이 네 개의 자음에 훨씬 더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ㅇ'은 일반 문장에서보다 월등히 적은 사용률을 보여준다.

'ㄹ'을 제외한 유성 자음은 비음(nasal)으로서 구강은 폐쇄되지만 대신 비강으로 통하는 통로가 개방되어 소리의 흐름이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비음은 상대적으로 약한 소리(G.Borden 외, 1994)이고 공명음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여운이 있다. 특히 'ㄹ'은 유음으로서 반모음적 성질을 띤 자음으로 가볍고 약동하는 느낌을 준다. 유성 자음의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자음들을 종성에 많이 사용하면 음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음절과 음소 빈도를 통한 영랑 시의 특징은 시행 끝 음절의 중복을 통한 음악적 효과 그리고 양성 모음과 종성에 유성 자음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얻는 음악적 효과가 상승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영랑 시가 「시집」 발간을 기점으로 초기시와 후기시로 구분하고 있지만, 음절이나 음소의 빈도에만 의존하면 그런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단지 통계상 찾아지는 차이점은 시 한 편당 평균 시행 수나, 평균 어절 수가 「시집」보다 「시선」이 더 많아서 시가 길어졌다는 점이다.

### 2.3. 어휘의 특징

총 85편의 시에 걸쳐 등장하는 개별 어휘는 1,900어이며, 종어휘는 4,710어로 시 한 편당 평균 22.4개의 개별 어휘가 사용되었고, 시 한 편은 55.4개의 단어로 이뤄졌다. 영랑 시의 품사별 분포를 보면 표 7과 같다.<sup>8)</sup>

8) 표에서 '보'는 '보조용언', '의'는 '의존명사'다

개별 어휘에서는 명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다음이 동사, 부사, 형용사 순이다. 반면, 전체 어휘에서는 명사가 가장 높고 다음이 동사, 형용사, 부사 순이다. 영랑 시 전체 어휘의 품사별 분포를 「청록집」의 시어(박갑수,1971:11)와 현대 시인의 시어(永野俊平,1993:79)<sup>10)</sup>와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되는 시인들의 시어 수와 시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참고가 될 따름이다.<sup>11)</sup>

표 7. 품사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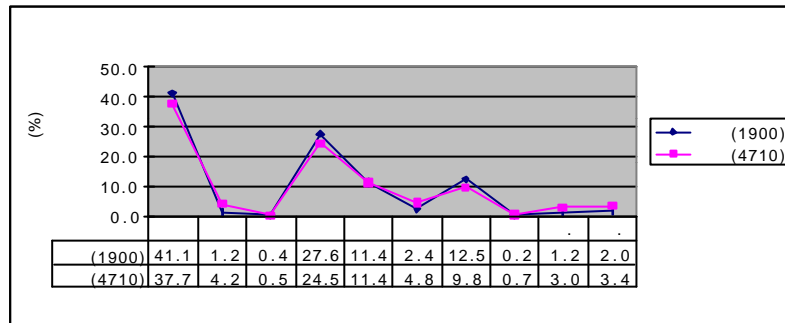


표 8을 통해 볼 때, 영랑은 형용사와 부사의 사용률이 다른 시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형용사는 사물의 뉘앙스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드러

9) 「청록집」에는 39편의 시가 실려 있다. 시인 별로는 박목월이 15편, 조지훈이 12편, 박두진이 12편이다. 그리고 내용어만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개별어휘/총어휘'는 '330/646 : 492/922 : 687/1820'이고 청록집 전체로는 '1479/3388'이다.

10) 김지하, 오세영, 곽재구 외 9인의 시 각 5편씩 총 60편의 전체시어에서 나타난 품사별 분포다. 임철성 외(1997)에서 재인용했다.

11)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이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어의 계량적 연구 업적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록집 전체적으로는 영랑의 시어와 그 對照的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없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상규·한영근(1999:68)에 의하면, 표본 크기가 1,000어휘 이상이면 비교적 안정적인 다양도의 어휘를 얻을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12) 시 작중에서 발견되는 품사 별 구성 비율 순위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경향은 시 작중에서만 발견되는 경향은 아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 어휘를 분석한 자료나 신문이나 소설 방송 대본 등을 분석한 결과(임철성 외,1997:23, 27)에서도 찾아진다. 다만 문장의 종류 혹은 장르에 따라 형용사와 부사의 순위가 바뀌기도 한다. 목한에서 나온 문영호 외(1994:70?)의 결과도 같다. 다만 문학예술작품은 다른 장르의 글에 비해 동사, 형용사, 부사의 비율이 상대

내고자 하는 단어이고(박갑수,1965),<sup>13)</sup> 부사는 동작을 보다 세밀하게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형용사와 부사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영랑이 다른 시인에 비해 상태 또는 양태 묘사적인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영랑 시는 문체면에서 묘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시인 별 전체 시어 품사 분포율<sup>14)</sup>

구분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김영랑	41.1	4.2	0.5	27.5	11.4	4.8	9.8	0.2
박목월	40.3	1.2	0.2	20.0	8.8	2.6	6.2	1.2
조지훈	41.8	1.0	0.3	18.7	9.1	2.5	5.1	0
박두진	30.3	5.1	0.1	21.3	8.8	1.8	8.4	0.4
현대시인	45.9	4.1	0.4	31.9	8.4	3.3	5.5	0.6

다음으로, 영랑 시어의 고빈도어 20개와 그 사용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소월 시의 고빈도어도 함께 제시한다.<sup>15)</sup> 여기서 소월 시의 고빈도어를 함께 제시하는 이유는 두 시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

격으로 높음이 지적되어 있다.

13) 임철성 외(1997)에서 재인용했다.

14) 다른 시어와의 비교를 위해 영랑 시의 의존명사는 명사에 포함시키고, 보조용언은 동사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영랑 시에 등장하는 시어의 품사별 비율을 개별어휘와 전체어휘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율1 = 개별어휘/1900\*100, 비율2 = 전체어휘/4710\*100, 중복사용수 = 전체어휘/개별어휘)

품사	개별어휘	비율1	전체어휘	비율2	중복사용수
명사	780	41.05	1774	37.66	2.27
대명사	23	1.21	200	4.25	8.7
수사	8	0.42	22	0.47	2.75
의존명사	38	2	160	3.4	4.21
동사	525	27.63	1152	24.46	2.19
형용사	216	11.37	539	11.44	2.5
보조용언	22	1.16	141	2.99	6.41
관형사	46	2.42	227	4.82	4.93
부사	238	12.53	463	9.83	1.95
감탄사	4	0.21	32	0.68	8
합계	1900		4710		2.48

15) 여기에 제시한 고빈도어는 30개지만, 영랑 시와 소월 시를 비교하는 논의는 고빈도어 100개를 대상으로 한다.

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16)</sup>

표 9. 고빈도 단어

순위	영랑시		소월시	
	단어	사용률	단어	사용률
1	나3	1.91	가다	1.41
2	그2	1.13	내2	1.39
3	마음	1.04	나	1.27
4	가대1	0.96	오다	1.24
5	이9	0.91	그2	1.02
6	눈물	0.64	하다	0.92
7	하늘	0.57	있다	0.88
8	소리	0.55	올다	0.78
9	없다	0.53	사람	0.75
10	한3	0.53	때1	0.73
11	날1	0.51	이2	0.71
12	바다	0.51	밤	0.70
13	흐르다	0.49	몸	0.69
14	올다	0.47	살다	0.65
15	가슴	0.45	것	0.64
16	뜨대1	0.45	되다	0.60
17	다2	0.42	보대1	0.55
18	보다2	0.42	우리	0.55
19	너	0.40	모르다	0.54
20	밤1	0.40	바람	0.54

16) 영랑 시의 시어 중 어재번호가 붙은 것은 동음이의어인 경우로 연세한국어사전에 따라 어재번호를 붙였다. 소월 시의 고빈도 시어는 김병선(1994)에서 시어와 빈도수를 가져오고 빈도율이나 누적빈도율은 필자들이 계산한 것이다. 소월 시의 개별어휘는 3,096 어고, 전체어휘는 13,220 어다. 소월 시어에 붙어 있는 어재번호도 동음이의어인 경우인데, 어느 사전을 참고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영랑 시의 고빈도어 21위부터 100위까지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버리다 2, 오4, 있다, 보대1, 위2, 꿈, 못4, 바람1, 겨5, 것, 서럽다, 되다, 뭇, 우리2, 크다하다, 맑다, 멀다, 못하다3, 외롭다, 죽엄(死), 눈1, 몸, 피, 희다, 가다2, 겨레, 그1, 년2, 노래, 농다2, 별1, 살다, 수, 아래, 앓다, 있다2, 죽다, 내(我), 봄, 봄, 속, 아니다, 있다, 존향, 구름, 그대, 떨어지다, 리, 새벽, 아침, 알다, 어느, 푸르다, 하나, 꽃, 그림다, 낮, 달1, 두건, 무슨, 보람, 서름, 아, 앞, 이제, 길, 찾다, 천2, 피다, 같다, 누구, 올다, 때, 또, 모르다, 사라지다, 인3, 어리다, 옛날.

영랑 시에서는 한 편의 시에 평균 22.4 개의 개별 어휘가 출현하고, 동일 단어가 중복 사용된 비율은 2.5 번이다. 이에 반해 소월 시에서는 한 편 당 평균 13.8 개의 개별 어휘가 출현하고, 동일 단어가 중복 사용된 비율은 4.3 번이다(김병선, 1994). 그리고 고빈도어 100개까지의 누적 빈도율을 보더라도 영랑은 33.2%이지만, 소월은 40.6%로 소월이 동일 단어를 더 중복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랑은 5% 정도의 단어가 33.2%의 사용률을 보이고, 소월은 3.2% 정도의 단어가 40.6%의 사용률을 보인다. 이 수치만을 가지고 영랑과 소월을 단순 비교하면, 영랑이 소월보다 더 다양한 어휘를 구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에 따라 어휘의 다양도는 감소하기 때문에(서상규 · 한영균, 1999), 총어휘수에서 차이가 있는 영랑의 시어와 소월의 시어를 단순 비교하여 영랑이 더 다양한 어휘를 구사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표본수를 같게 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랑과 소월의 시어 중 고빈도어 100개 가운데 두 시인의 시어에서 중복되는 단어는 58개로<sup>17)</sup> 두 시인이 즐겨 사용한 어휘가 58%정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어휘의 유사성은 두 시인의 시적 정서와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 시인에게 공통되는 고빈도 시어 중 몇 가지만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색깔 : 푸르다, 희다; 대명사 : 나/내/우리, 너, 그/그대; 자연 : 구름, 바다, 바람, 하늘; 時侯 : 날[日], 밤, 봄, 해(年), 때; 신체 : 가슴, 눈, 몸; 감정 : 그립다, 꿈, 노래, 눈물, 마음, 울다, 있다' 등이다. 두 시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 중 '그립다, 눈물, 울다, 있다'는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 '푸르다, 희다, 때를 나타내는 어휘 '밤' 등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랑의 시어는 전체 시어의 약 8.3% 정도(시집:10%, 시선:7%)의 방언이 사용되었다.<sup>18)</sup> 그리고 한 시어가 동일 시행에서 반복되거나, 한 시구 혹은 시행이 같은 시행이나 시행을 달리하여 반복 사용한 비율은 약 1.5% 정도(시집:2.1%, 시선:1.1%)다. 그리고 첩어가 0.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난다. 여기서 특히 관심을 갖게 하는 점은 방언의 사용인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17) 동음이의어의 경우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형태가 같으면 동일한 단어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오차가 있다.

18) 방언으로 처리한 어휘는 표준어/중양어와 형태가 다른 전남 혹은 강진 방언이거나 고어투려 어휘다. 따라서 전남 혹은 강진 방언만으로 제한하면, 그 비율은 더 줄어든다.

방언이 사용되어야 지역색 혹은 향토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지 정확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sup>19)</sup> 그러나 10어절 중 한 어절이 방언이라고 한다면 결코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영랑 시의 경우 한 시행 당 평균 5어절이 사용되었고 시 한 편 당 평균 55개 정도의 어절이 사용되었으므로 두 시행에 걸쳐 방언이 하나 정도 등장하고 시 한 편을 통해 5.5개 정도의 방언이 등장한다. 손광은(1982)은 영랑 시의 향토성으로 토속어 혹은 강진 방언의 사용과 고향을 배경으로 한 정서 등을 들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영랑 시가 향토성이 배어나게 하는 주된 특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 어떤 요소가 영랑 시를 한층 향토색이 짙은 작품으로 만들었을까? 영랑 시어의 계량 결과들 『청록집』과 비교해 볼 때, 영랑 시에서 향토성은 그의 향리를 배경으로 한 자연을 소재로 해서라기보다는 방언의 사용 때문이라고 본다.(영랑 시어의 자연 관련어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 2.4. 시어의 의미 분류

영랑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시어를 의미 분류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여기서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1990)의 『分類語彙表』를 이용하였다.

19) 광주 출신의 시론학파 시인인 박용철의 시어, 동시대 강진 출신의 시인인 김현구의 시어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런 비교를 하지 못했다.

표 10. 품사별, 의미별 어휘 분포

품사별	의미군	단어수	비율
체언	추상적 관계	197	10.37
	인간 활동의 주체	133	7
	인간 활동 정신 및 행위	127	6.68
	생산물 및 용구	83	4.37
	자연물 및 자연 현상	271	14.26
	소계	811	42.68
동사	추상적 관계	227	11.95
	정신 및 행위	212	11.16
	자연 현상	86	4.53
	소계	525	27.63
형용사	추상적 관계	84	4.42
	정신 및 행위	70	3.68
	자연 현상	62	3.26
	소계	216	11.37
부사	추상적 관계	140	7.37
	정신 및 행위	40	2.11
	자연 현상	49	2.58
	소계	229	12.05
기타	접속관계 등	9	0.47
	의존명사	38	2
	관형사	46	2.42
	보조용언	22	1.16
	감탄사	4	0.21
	소계	119	6.26
	합계	1900	100

시어를 의미 분류한 결과 체언에서는 '자연물 및 자연현상'과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아서, 영랑 시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중요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sup>20)</sup> 동사에서는 '추상적 관계'와 '정신 및 행위'와 연관된

20) 김광해(1998)는 일제 강점기의 대중가요 가사를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어휘 분류표'에 따라 의미분류한 결과 '자연물, 자연현상'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랑 시에서도 명사의 경우, '자연물, 자연현상'에 관한 단어가 가장



단어가 엇비슷하였으며, 형용사와 부사는 '추상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다. 표 10을 다시 총사와 관계없이 의미에 따라 단순화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의미별 분류

추상적 관계(존재 방식)	34.1
이가활동의 주체, 정신 인간활동의 생산물	35.0
자연물 및 자연 현상	24.6
기타	6.3

표 11을 통해 우리는 영랑 시가 인간과 관련된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자연물 및 자연 현상에 대한 단어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청록집』의 시어를 의미 분류한 박갑수(1971)에 의하면, 자연 관련 어휘가 박목월 26.8%, 조지훈 32.0%, 박두진 43.4%로 나타난다. 시어 수에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랑과 청록파 시인들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시어의 數的인 면만 고려한다면, 『청록집』과의 비교는 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 혹은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연물, 자연현상'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1) 영랑의 자연 관련어를 좀더 자세히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항목에 따른 시어의 자세한 분류(자연 및 자연 현상 관련어)	단어수
분류번호 의미 항목	
1.5 자극(빛, 색, 소리, 냄새, 맛, 재질)	34
1.51 자연, 물체, 물질(화학성분, 광물, 공기, 물질의 변화, 風雨雪水露, 파도, 열 등등)	44
1.52 우주, 하늘	58
1.55 生(식물, 가지, 잎, 꽃 등)	45
1.56 동물, 파충류, 물고기, 벌레, 무척추동물 등	35
1.57 몸	46
1.58 생명	9
2.5 자극	26
2.51 연기, 乾濕, 天災, 晴雨, 氷, 火, 熱 등	21
2.58 天象, 生育, 生·死, 病, 생리·생식	39
3.5 자극	86
3.51 수분, 기상, 물, 땅, 生 産	16
3.57 몸	8
3.58 생육, 건강	1

능하리라 본다. 『청록집』과 비교해 보기 위해, 박갑수(1971)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영랑 시의 자연 관련어는 216개로, 그 비율은 11.4%(= 216/1900\*100)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록집』의 세 시인의 자연 관련 어휘의 평균치(= 『청록집』의 자연 관련어 비율.)는 34.1%에 달해 영랑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자연 관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통계 결과는 영랑 시가 청록파 시인의 시와는 분명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영랑에게 있어서의 향토성은 자연 관련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 3. 맺음말

이 글은 영랑 시의 시어를 계량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랑 시 85편의 개별 어휘는 1,900개이고, 중어휘는 4,710개이며, 시 한 편은 평균 22.4개의 개별 어휘와 55.4개의 단어로 이뤄졌다(助詞 제외). 중음절 수는 11,969개다. 둘째, 시 전체의 음절과 어두 음절, 어말 음절, 시행 끝 음절을 비교한 결과 '시행 끝 음절, 어말 음절, 어두 음절, 시 전체 음절'의 순으로 음절의 중복 비율이 높았다. 셋째, 음소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시행 끝 음절의 음소가 가장 높은 중복률을 보였다. 초성은 'ㄷ, ㄴ, ㄹ'이 중성은 'ㄱ, ㄴ, ㄷ'가, 종성은 'ㄴ, ㄹ, ㅁ'의 빈도가 높았다. 넷째, 영랑 시의 주된 운율적 장치는 시행 끝 음절의 중복으로 파악했다. 넷째, 품사별 분포를 살펴 본 결과 비교 대상이 된 청록파 시인이나 현대 시인들보다 영랑은 부사와 형용사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그 결과 영랑의 시는 묘사적이라고 파악하였다. 다섯째, 영랑의 시어를 소월의 시어와 비교해 본 결과 고빈도 상위 100개 단어에서 58%의 단어가 중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단어의 중복은 그들의 시적 정서와도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인 두 서정 시인을 지칭할 때, "북에 소월이 있다면, 남에는 영랑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시인에게서 약 60%에 달하는 공통 어휘를 찾을 수 있었다. 여섯째, 영랑 시의 향토성은 자연 관련어보다는 전체 시어의 약 8.3% 정도 사용된 방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일곱째, 영랑 시어를 의미별로 분류한 결과 체언에서는 자연 관련어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청록집』의 자연 관련어의 비율과 비교하면, 영랑은 그들에 비해 1/3 정도의 자연 관련어를 사용하여 영랑 시의 향토성의 주된 요인이 자연 관련어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 참고문헌

- 김영랑(1935), *영랑시집*, 문학사상사.
- 김영랑(1959), *영랑시집*, 신구문화사.
- 김광해(1998), *일제 강점기의 대중가요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http://plaza.snu.ac.kr/~sunnysea/>>>.
- 김병선(1994), *소월의 시어와 그 쓰임새 3(시어 목록)*, 한국문화사.
- 김완진(1982), *『문학과 언어』*, 탑출판사.
- 김용직(1974), *남도기락의 순수열정 -김영랑의 시어*, 문학사상24, 문학사상사.
- 김학동 편저(1993), *『김영랑』*, 한국현대시인연구 3, 문학세계사.
- 남형원(1974), *새 자료를 통해 본 김영랑의 생애*, 문학사상24, 문학사상사.
- 문교부(1955),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잦기 조사 -문자 빈도 조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영호 외(1994), *조선어 빈도수 사전*, 한국문화사.
- 박갑수(1971), *청록집의 어휘고*, 김형규 박사 송수기념 논총.
- 서상규·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 성호경(1996), *한국어의 특징에 따른 한국시가의 문·물 양상*, 『문학과 언어의 만남』, 신구문화사.
- 손광은(1982), *영랑시에 나타난 향토성 연구*, 『호남문화연구』 12,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 양병호 편(1997), *오래 단풍들것네*, 한국문화사.
- 오하근 편(1995), *원본 김소월 전집*, 집문당.
- 오하근(1995), *김소월 시어법 연구*, 집문당.
- 이기갑 외(1998), *전남 방언 사전*, 태학사.
- 임철성·水野俊平·北山一雄(1997), *한국어 계량 연구*, 전남대 출판부.
- 정한모(1964), *조밀한 서정의 탄주 -김영랑론-*, 문학준추1.9, 문학준추사.
- 정한모(1974), *서정주의의 한 극치 -김영랑의 시문학사적 위치*, 문학사 문학사상사.
- 한유석(1998), *한국어 어휘분류표의 작성 시안*, 인문논총5, 동신대 인문과학연구소.
- 허형만(1993), *영랑 김문식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 G.Borden, K.Harris, L.Raphael(1994), *『Speech Science Primers』*(김기호·양병곤·고도홍·구희산 공역(2000), 『음성과학』, 한국문화사.)

158 조창규 · 한유석

韓有錫(1999), 「韓國語の語彙分類表の作成方法—日韓兩言語の比較研究のため  
に」, 『日本語論究』6, 和泉書院

國立國語研究所(1990), 『分類語彙表』, 秀英出版

田島錦堂(1992), 「語彙指標—語彙の計量的側面と語彙研究への視點—」, 『日本  
語論究2』, 和泉書院

조창규

520-714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동신대학교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전화: (061) 330-3615  
이메일: ccgyoo@dreamwiz.com

한유석

520-714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동신대학교 어문학부 일본어과  
전화: (061) 330-3641  
이메일: yusukhan@hanmail.net